

보건의로 전공 한국 대학생과 베트남 대학생의 진로 의식 연구

이예종
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A Study on the Career Awaren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Vietnames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Ye-Jong Lee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Gimche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건의를 전공하는 한국 대학생과 베트남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의식을 조사하여 진로 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보건의를 전공하는 한국 대학생과 베트남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 2월1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를 하였고, 유효한 설문지 200부를 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가 간 진로 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적 내 진로 의식 차이 검증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방향이 명확'하고 '진로에 대한 본인 의지가 확고'한 반면, 베트남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미루어두거나 방관' 및 '주위 조언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효과적인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문화 다양성을 반영한 융복합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국제교류프로그램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보건의로, 진로방향, 진로 의식, 진로 교육, 융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reer awarenes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Vietnames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and provide base data about career education.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and Vietnames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from February 1, 2020 to February 20, 2020, and the 200 copies of valid survey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with SPSS 20.0.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aware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in the verification of career awareness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Korean university students were 'certain about their career direction' and 'had a firm will about their career' while Vietnamese university students 'put off or remained idle about their career concerns' and 'were strongly influenced by the advice from the people around them.' Based on the study findings, it was identified that a convergence career education program that reflects on cultural diversity should be opened and applied in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so that university students can prepare for their careers effectively.

Key Words : Health Care, Career Direction, Career Awareness, Career Education, Convergence

*This Study was a result of research conducted by the Gimcheon University Faculty Research Year.

*Corresponding Author : Ye-Jong Lee(claton@hanmail.net)

Received January 6, 2022

Revised February 9, 2022

Accepted February 20, 2022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한국교육개발원의 '2019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연보'를 보면 대학 졸업 후 전체 취업률은 63.3%에 그쳤지만, 의약 계열의 경우 84.4%, 의학한약학은 90%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학 76.1%, 재활학 81.9% 외에도 방사선학, 물리치료학, 응급구조학, 임상병리학 등 의료·보건 관련 학과의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 이를 반영하듯 대학입시에서도 경쟁률 상위학과는 의료·보건 계열 등 인기학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2,3], 국가 취업 지원 포털사이트인 '워크넷'의 분석 결과에서도 사회복지나 보건, 의료 관련 직종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4].

그러나 자신의 적성이나 전공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로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공 만족도와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는 진로 선택과 진로 만족이 전공 적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5]. 대학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능력의 저하가 따르고 사회생활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6]. 만약 보건으로 전공 대학생들이 제대로 된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여 진로 만족도가 떨어지면 환자의 진로 만족도와 의료의 질적인 측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진로와 전공 선택 이전에 본인 스스로의 능력과 적성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대학 생활 동안 보완해야 하는 것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7]. 대학 생활은 진로와 불가분의 관계로, 진로 발달단계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준비과정으로 진로 분야에 필요한 훈련을 받는 시기이다[8]. 따라서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중요성은 높아지고 진로 문제는 대학생들에게는 당면한 주요 문제일 수 밖에 없으므로 대학에서의 진로 교육 및 지도는 필수적이다.

한편, 교육부의 '2021년 교육기본통계' 조사에 의하면,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수는 120,018명(78.8%)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으며, 중국(44.2%) 다음으로 베트남(23.5%) 유학생 비율이 높았다[9]. 2000년대부터 외국인 유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베트남 유학생의 증가이다. 베트남의 경우 2010년 기준 유학생 수가 370명이었으나, 2018 기준 3,690명으로[10] 2021 현재 학위과정 유학생 중 중국인 유학생의 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나, 베트남인 유학생은 20.8%로 타 국가 출신 유학생에 비해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다[9]. 그

러나 베트남 학생이 타 국가 출신에 비해 전체적인 한국 적응도와 진로 성숙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11,12], 이는 학업 중단 요인이 되어 유학생들의 학업 중도 탈락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은 언어, 문화 등의 문제로 인해 소속감, 만족도 등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13]. 또한 나라마다 문화와 사회 분위기가 달라 교육 과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진로 분야에서 시작된 유연한 사고와 관점을 갖게 하는 다양성 수용도는 학과 만족도가 높을수록 증진되고, 다양성 수용도가 높아질수록 진로 준비 행동도 증진된다[14]. 따라서 베트남의 우수한 학생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진로 의식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다양성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진로 교육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미리 이러한 진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유학을 온다면 한국 적응도와 진로 적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면허시험제도, 질병관리정책에 관심을 갖고 한국형 제도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2019년 한국과 베트남은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15].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이들의 진로 의식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선행된다면, 보건 의료 전공 인재를 한국으로 유학시켜 역량을 강화시키고 국제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보건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과 베트남 간에 진로 의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학습 및 진로를 지도함에 있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와 대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연구 결과를 적용한 융복합 진로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더 많은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하여 학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보건의료(의학, 간호학, 보건 계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효과적으로 진로 교육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자료 수집,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위해 한국(서울, 대전, 대구 및 경북, 전주)과 베트남(하노이, 다낭, 호치민) 현지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들을 편의표집방법을 통해 모집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은 G*Power 3.1.9.4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ifference between two independent means(two groups)'에 필요한 효과 크기 0.5, 유의수준 95%, 검정력 .80, allocation ration 1로 산정했을 때의 최소 인원인 128명을 충족하였다.

자료 수집은 한국 대학생의 경우, 보건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5인에게 협조 요청한 후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 내용을 교육하여 연구자와 함께 google form 링크와 자기 기입식 종이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 응답에 동의한 대상에 한해 자료 수집을 하였다. 그러나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외국인인 연구자가 직접 학생들을 만나 자료 수집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 베트남 현지 한국어 통역사와 한국어 전공 4학년 학생 5인에게 협조를 요청한 후 연구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지 내용을 교육하였다. 이후 google form 링크와 자기 기입식 종이 설문지를 활용하여 설문 응답에 동의한 대상에 한정해서 자료 수집을 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0일까지 실시하였다. 총 24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26부를 수거하였으며, 이중 응답 내용이 부실한 26부를 제외한 유효 설문지 총 200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에 대한 내용은 성별, 연령, 학년, 학비 마련으로 구성하였다.

2.3.2 진로 의식

한국과 베트남 대학생의 진로 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 의식 측정 도구는 이은경

(2002)의 연구[16]에서 사용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CMI(Career Maturity Inventory)의 태도척도 가운데 상담용 척도(counseling form B-1)를 이화여대 연구자들이 직접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 제작한 진로 의식 성숙 검사지이며, 다음의 5가지 하위 요인 33문항으로 되어 있다. 진로 확정도 10개(문항 1, 2, 3, 6, 8, 15, 21, 25, 26, 29), 진로 독립도 9개(문항 5, 7, 9, 12, 16, 17, 22, 23, 28), 진로 타협도 7개(문항 10, 11, 18, 24, 27, 31, 32), 직업 선택의 태도 5개(문항 4, 13, 14, 20, 30), 진로 관여도 2개(문항 19, 33)로 구성되었다. 긍정문(문항 3, 6, 7, 12, 17, 21, 22, 24, 32)의 경우는 '그렇다'에 1점, '아니다'에 0점으로, 부정문(그 외의 모든 문항)은 '그렇다'에 0점, '아니다'에 1점으로 채점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진로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측정된 33개 항목들의 신뢰성 검증은 각 항목의 Cronbach's Alpha는 .75 이상, 전체 Cronbach's Alpha는 .78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4 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인구학적 변인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s α 를 구한 후, 진로 의식을 세분화하기 위하여 요인분석과 군집분석을 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거나 범주별 응답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가 간 진로 의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국적 내 진로 의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분산분석(ANOVA)를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한 전체 응답자는 한국 대학생 100명, 베트남 대학생 100명 총 200명이다. 국적에 따른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한국과 베트남의 비율은 각각 100명(50.0%)이다. 한국의 경우, 남성 51명(51.0%), 여성 49명(49.0%), 베트남의 경우 남성 38명(38.0%), 여성 62명(62.0%)으로 여성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한국은 22세~23세의

비율이 40명(40.0%)으로, 베트남은 21세 이하가 54명(54.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학년은 한국과 베트남이 4학년의 비율이 각각 38명(38.0%), 47명(4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부모님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다라는 비율이 39명(39.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본인+학자금대출이 18명(18.0%), 본인+장학금이 12명(12%), 학자금대출이 9명(9%)의 순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경우, 본인(아르바이트 등)이 50명(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학금 10명(10%), 학자금대출이 4명(4%)으로 나타나, 학비 마련에 있어서 한국과 베트남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본인이 일을 하고 학자금대출이나 장학금을 통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비중이 높았다. 그러나 베트남 대학생의 경우는 부모의 도움도 물론 받고 있지만 그보다 본인이 직접 돈을 벌어서 학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n(%)

		Korea	Vietnam
Sex	male	51(51.0)	38(38.0)
	female	49(49.0)	62(62.0)
	Total	100(100.0)	100(100.0)
Age	under 21 years	29(29.0)	54(54.0)
	22-23 years	40(40.0)	36(36.0)
	over 24 years	31(31.0)	10(10.0)
	Total	100(100.0)	100(100.0)
Grade	freshman	4(4.0)	0(0.0)
	sophomore	33(33.0)	43(43.0)
	junior	25(25.0)	10(10.0)
	senior	38(38.0)	47(47.0)
	Total	100(100.0)	100(100.0)
How to pay tuition	parents	39(39%)	34(34%)
	self(part-time job)	4(4%)	50(50%)
	relative	0(0%)	2(2%)
	scholarship	6(6%)	10(10%)
	student loan	9(9%)	4(4%)
	parents+self	6(6%)	0(0%)
	parents+scholarship	3(3%)	0(0%)
	self+student loan	18(18%)	0(0%)
	self+scholarship	12(12%)	0(0%)
	studentloan+scholarship	3(3%)	0(0%)
	Total	100(100.0)	100(100.0)

3.2 진로 의식의 세분화(segmentation)

3.2.1 요인분석

진로 의식에 따른 학생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총 33개 항목을 명목척도를 이용하여 한국과 베트남 학생들에게 응답하게 했고 이를 더미화하여 요인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추출 방법은 Principle Component 방식(PCA)을 사용하였고 회전방식은 가장 일반적인 Orthogonal Varimax 방식을 이용하였다. Eigenvalues 1.0 이상을 기준으로 총 6개의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6개 요인의 총 설명력은 62.3%이다.

제1 요인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가져야 할지 잘 모르겠다'(0.785), '현재 내 모습과 미래 직장인으로서 되고자 하는 모습이 달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다'(0.762), '내가 세운 진로 계획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잘모르겠다'(0.739) 등 아직까지 진로에 대해 주관 없이 불안해하는 의견이 높아 「진로 의식 미성숙」으로 명명하였다.

제2 요인은 '자신의 직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0.890),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면 스스로 직업을 결정할 것이다'(0.860), '직업 선택은 전적으로 내가 해야 한다'(0.798) 등 진로에 대한 본인 의지가 높아 「진로 본인 의지 확고」라고 명명하였다.

제3 요인은 '자신의 진로 문제는 부모나 친구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0.742), '직업을 선택할 때 부모의 충고를 따를 것이다'(0.706) 등 「진로 조언 중시」로, 제4 요인은 '누구나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문제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0.767), '졸업 후 취업하기를 원하지만, 그 문제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0.484) 등이 높아 「진로 저관여/방관」으로 명명하였다.

제5 요인은 진로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0.771), '미래의 내 직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0.741) 등이 높아 「진로 방향 명확」으로, 제6 요인은 '만약 누구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말해 준다면 내 마음이 훨씬 더 편할 것'(0.650), '직업을 선택할 때 누군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해주면 좋겠다'(0.644) 등이 높아 「진로 위임/회피」로 명명하였다.

Table 2. Factor analysis of Career Awareness

(n=200)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factor6
Immature career consciousness	25) I want to work, but I don't know which career I should decide on.	0.785	0.015	0.107	0.206	-0.034	0.115
	18) I am concerned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my present state and what I want to do as a worker in the future.	0.762	0.078	-0.080	-0.025	-0.100	0.089
	27) I am not sure whether my carer plans are realistic.	0.739	0.139	-0.071	-0.185	-0.264	0.167
	02) I have no idea which career I should pursue.	0.721	-0.106	0.127	0.336	-0.112	-0.091
	08) I am not sure what I should do to work with my desired career.	0.715	-0.065	0.129	-0.018	-0.097	0.085
	30) I don't know a lot about myself or the world of work, so I get concerned thinking about deciding on a career.	0.692	-0.123	-0.066	0.285	-0.312	-0.103
	26) I have not yet discovered the ideal career for me.	0.665	-0.179	0.154	0.327	0.075	0.161
	32) It is not easy to get my desired career in reality.	0.525	0.007	0.472	-0.050	-0.001	-0.193
	13) I am not sure which subjects I have to choose to connect with my career.	0.498	-0.437	-0.095	0.227	0.177	0.030
	24)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prepare for my desired career.	0.476	0.350	-0.220	0.054	0.242	0.086
Self-willpower determination about career	07) Individuals should choose their jobs.	-0.018	0.890	-0.132	-0.149	0.139	0.103
	12) When I have to choose my career, I will have to decide on my own.	-0.168	0.860	0.075	-0.024	0.120	-0.063
	17) I am completely in charge of choosing my career.	0.029	0.798	-0.150	-0.156	0.262	0.079
	05) I will follow my parents' opinions to choose my career.	-0.031	-0.763	0.389	0.123	0.095	-0.018
	15) I often change what I want to do as my career.	0.286	-0.703	0.069	0.214	-0.070	0.185
	20) A career is connected to income, so choosing the right career is an important matter.	0.026	0.684	0.159	-0.036	-0.003	0.203
	10) I frequently think that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my current self and my ideal self.	0.182	0.586	0.045	0.156	-0.324	-0.058
	01) At times, I imagine my future, but I have not made detailed career decisions.	0.355	0.494	-0.343	0.006	-0.047	0.175
Prioritize career advice	14) The biggest reason I want to have a certain career is that I want to be successful.	0.103	0.228	0.749	0.191	-0.130	0.029
	09) I have to follow my parents' or friends' advice about my career problems.	0.000	-0.278	0.742	-0.078	0.017	0.171
	16) When I select my career, I will follow my parents' advice.	-0.017	-0.336	0.706	0.009	0.061	0.232
	04) Wage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to select a career.	0.135	0.124	0.396	0.358	0.158	-0.179
Low career engagement/negligence	19) I know that everyone has to get a job someday, but I don't think of it very seriously.	0.241	-0.109	-0.013	0.767	0.052	0.145
	29)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fields, so it is hard to decide on a certain career.	0.446	0.272	-0.037	-0.570	0.035	0.051
	33) I want to be employed after I graduate from university, but I don't think much about it.	0.420	-0.164	0.151	0.484	0.055	0.036
	31) I have very high career goals, so I don't think I will ever achieve the goal.	0.438	-0.430	0.278	0.452	0.029	-0.064
Career direction clarity	06) Now that I think back, I knew what I wanted to do since I was young.	-0.127	0.218	-0.043	-0.031	0.771	-0.016
	21) I can clearly state my future career.	-0.140	-0.110	0.045	0.211	0.741	-0.258
	03) I think I can be successful in any career.	-0.232	0.051	0.075	-0.482	0.522	0.205
Career delegation/avoidance	23) I would feel much better if anyone tells me what I should do as my career.	0.001	-0.011	0.133	0.112	-0.056	0.650
	28) When I select my career, I want someone to tell me which career I should have.	0.415	0.101	0.000	0.021	-0.005	0.644
	11) There are so many things to consider when choosing a career, so it is hard to make a decision.	0.347	0.325	0.060	-0.097	0.068	0.603
	22) I don't want my parents to get involved in my career.	0.354	0.129	0.044	0.187	0.374	-0.559
Eigenvalues	5.879	5.454	2.612	2.427	2.136	2.047	
(% of Variance)	17.8%	16.5%	7.9%	7.3%	6.5%	6.2%	

3.2.2 진로 의식 국가 간 차이

진로 의식 국가 간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진로 의식에서 한국 학생은 진로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진로 본인 의지 확고’ 요인과 부담스럽고 선택하기 힘든 진로에 대해 위임하거나 회피하고 싶은 ‘진로 위임/회피’요인 등 두 가지 상반된 요인에서 베트남 학생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베트남 학생은 진로에 대한 ‘주위 조언 중시’ 요인과 진로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만 미루고 싶은 ‘진로 저관여/방관’ 요인에서 한국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진로 의식 국적 내 차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국 학생은 ‘진로 방향 명확’(0.62), ‘진로 본인 의지 확고’(0.61) 등이 타 요인과 비교해 가장 높았고, 베트남 학생은 ‘진로 저관여/방관’, ‘진로 조언 중시’, ‘진로 방향 명확’ 요인이 가장 높았다. 한국 학생이 진로 의식에서 본인의 주관이 좀 더 뚜렷한 반면, 베트남 학생들은 진로에 대해 의존적이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국 : 진로 방향 명확 > 진로 본인 의지 확고 > 진로 의식 미성숙 ≍ 진로 위임/회피 ≍ 진로 조언 중시 ≍ 진로 저관여/방관 (* *t-test*)

- 베트남 : 진로 저관여/방관 ≍ 진로 방향 명확 ≍ 진로 조언 중시 > 진로 의식 미성숙 > 진로 본인 의지 확고 ≍ 진로 위임/회피 (* *t-test*)

다음으로 6개 군집별 한국 대학생과 베트남 대학생의 진로 의식 차이를 살펴보면 Table 4와 같다. 한국 대학생의 경우, 스스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고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하여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베트남 대학생의 경우, 진로 의식 미성숙으로 인하여 스스로 어떤 직업을 결정해야 할지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부모나 친구의 조언을 중시하여 자신의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Career Awareness between countries

	Career consciousness					
	Immature career consciousness	Self-willpower determination about career	Prioritize career advice	Low career engagement/negligence	Career direction clarity	Career delegation/avoidance
South Korea(n=100)	0.40	0.61	0.33	0.33	0.62	0.39
Vietnam(n=100)	0.44	0.41	0.51	0.58	0.54	0.29
<i>t-value</i> ¹⁾	-0.739	10.903**	-3.210**	-4.306**	1.294	3.012**

¹⁾ *t-test* : * (95% significance level), ** (99% significance level), n.s(not significance)

Table 4.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by cluster of Career Awareness

	Korea	Vietnam	<i>t-value</i>	Cluster
08) I am not sure what I should do to work with my desired career.	0.33	0.35	-0.297	Immature career consciousness
02) I have no idea which career I should pursue.	0.32	0.53	-3.059**	
13) I am not sure which subjects I have to choose to connect with my career.	0.22	0.58	-5.559**	
18) I am concerned because there is a gap between my present state and what I want to do as a worker in the future.	0.50	0.42	1.133	
24)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prepare for my desired career.	0.58	0.18	6.363**	
25) I want to work, but I don't know which career I should decide on.	0.43	0.47	.566	
26) I have not yet discovered the ideal career for me.	0.37	0.57	-2.878**	
27) I am not sure whether my carer plans are realistic.	0.46	0.30	2.351 [†]	
30) I don't know a lot about myself or the world of work, so I get concerned thinking about deciding on a career.	0.34	0.55	-3.042*	
32) It is not easy to get my desired career in reality.	0.46	0.53	-0.987	
01) At times, I imagine my future, but I have not made detailed career decisions.	0.60	0.16	7.155**	Self-willpower determination about career
05) I will follow my parents' opinions to choose my career.	0.13	0.82	-13.446**	
07) Individuals should choose their jobs.	0.93	0.10	20.971**	
10) I frequently think that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my current self and my ideal self.	0.63	0.24	6.020**	
12) When I have to choose my career, I will have to decide on my own.	0.91	0.21	1.992**	
15) I often change what I want to do as my career.	0.24	0.80	-9.522**	
17) I am completely in charge of choosing my career.	0.86	0.11	15.972**	
20) A career is connected to income, so choosing the right career is an important matter.	0.87	0.17	13.814**	

04) Wage i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to select a career.	0.50	0.54	-.564	Prioritize career advice
09) I have to follow my parents' or friends' advice about my career problems.	0.28	0.57	-4.317**	
14) The biggest reason I want to have a certain career is that I want to be successful.	0.39	0.34	.732	
16) When I select my career, I will follow my parents' advice.	0.32	0.61	-4.275**	Low career engagement/negligence
19) I know that everyone has to get a job someday, but I don't think of it very seriously.	0.41	0.58	-2.428*	
29) There are so many interesting fields, so it is hard to decide on a certain career.	0.39	0.08	5.527**	
31) I have very high career goals, so I don't think I will ever achieve the goal.	0.13	0.65	-8.865**	Career direction clarity
33) I want to be employed after I graduate from university, but I don't think much about it.	0.24	0.57	-5.022**	
03) I think I can be successful in any career.	0.67	0.47	2.902**	
06) Now that I think back, I knew what I wanted to do since I was young.	0.62	0.40	3.174**	Career delegation/avoidance
21) I can clearly state my future career.	0.61	0.68	-1.032	
11) There are so many things to consider when choosing a career, so it is hard to make a decision.	0.39	0.06	6.053**	
22) I don't want my parents to get involved in my career.	0.56	0.60	-.571	
23) I would feel much better if anyone tells me what I should do as my career.	0.39	0.39	.000	
28) When I select my career, I want someone to tell me which career I should have.	0.23	0.12	2.058*	

**99% significance level, *95% significance level

Table 5. Cluster analysis according to Career Awareness (n=200)

	factor 1 Immature career consciousness	factor 2 Self-willpower determination about career	factor 3 Prioritize career advice	factor 4 Low career engagement/negligence	factor 5 Career direction clarity	factor 6 Career delegation/avoidance
Cluster I (Low career engagement & public opinion willpower group)	0.47	0.18	<u>0.83</u>	<u>0.66</u>	0.56	0.22
Cluster II (Career clarity & willpower determination group)	0.18	<u>0.74</u>	0.17	0.11	<u>0.66</u>	0.15
Cluster III (Immature career consciousness & avoidance group)	<u>0.89</u>	0.71	0.26	0.70	0.40	<u>0.66</u>

3.2.3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6개의 요인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3개 유형의 군집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3개 군집에 따른 6개 요인의 평균 요인점수는 Table 5와 같다. 최종적으로 3개 군집에 대한 명칭은 각 군집을 구성하는 33개 변수와 6개의 요인을 교차분석한 후 결정하였다.

3.3 세분 집단별 특징

3.3.1 세분 집단별 국적 비중

최종 3개로 구분된 학생 군집별 구성비는 Fig. 1과 같다. 전체 학생 가운데 '진로 명확 & 의지 확고 집단'이 44%로 가장 많았고, '진로 저관여 & 여론 의지 집

단'이 39%, '진로 의식 미성숙 & 회피집단'이 17%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진로 저관여 & 여론 의지 집단(39%)'은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모의 의견이나 충고를 따르겠다는 의견이 매우 강하며 직업에 관한 목표가 너무 높아 결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진로 명확 & 의지 확보 집단(44%)'은 어려서부터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하며, 직업을 선택할 때가 되면 스스로 직업을 결정하고, 어떤 직업에서든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강한 유형이다. '진로 의식 미성숙 & 회피집단(17%)'은 일을 하고 싶지만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며, 되고자 하는 모습이 매번 달라지며 본인이 세운 진로 계획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태도이다. 또한

직업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누가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는 매우 방관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다. 이를 다시 국가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은 '진로 명확 & 의지 확고 집단'이 전체의 65%로 가장 많았고, '진로 의식 미성

숙 & 회피집단'이 26%, '진로 저관여 & 여론 의지 집단'이 9%로 낮았다. 반면 베트남 학생은 '진로 저관여 & 여론 의지 집단'이 69%로 가장 많았고, '진로 의식 미성숙 & 회피집단'은 9%로 가장 적어 국적별로 세분 집단 구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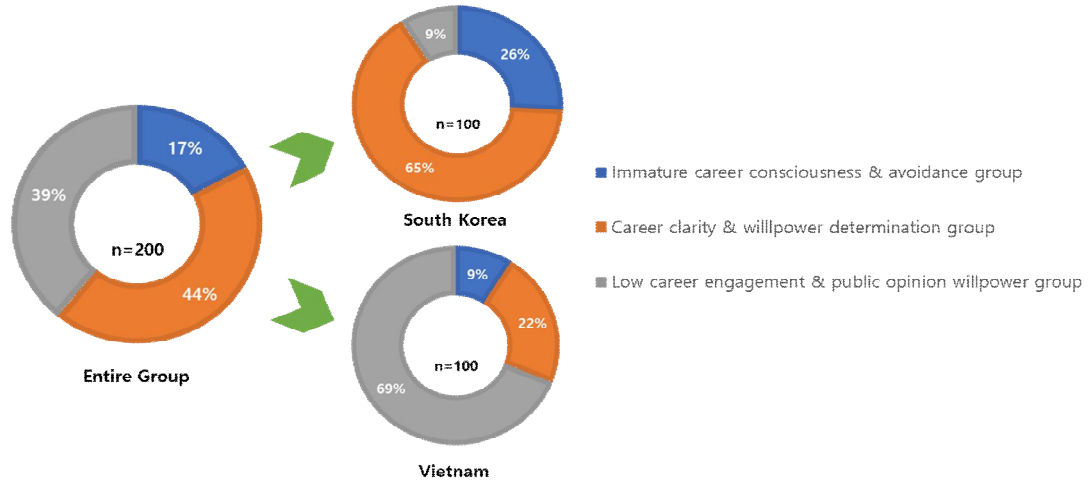


Fig. 1. Proportion of Nationality by cluster

3.3.2 세분 집단별 학생 특성 분석

세분 집단별 학생 특성은 Table 6과 같다. 한국 대학생과 베트남 대학생 모두 성별과 연령에서 세분 집단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6. Analysis of student characteristics by clusters

		Cluster						n(%)
		Low career engagement & public opinion willpower group	Career clarity & willpower determination group	Immature career consciousness & avoidance group	Low career engagement & public opinion willpower group	Career clarity & willpower determination group	Immature career consciousness & avoidance group	
		Korea			Vietnam			
Sex	male	2(3.9)	34(66.7)	15(29.4)	22(57.9)	12(31.6)	2(10.4)	
	female	7(14.3)	31(63.3)	11(22.4)	47(75.6)	10(16.1)	5(8.1)	
	statistic	$\chi^2=3.493$			$\chi^2=3.810$			
Age	under 21 years	3(10.3)	23(79.3)	3(10.3)	34(63.0)	13(24.1)	7(13.)	
	22-23 years	4(10.0)	24(60.0)	12(30.0)	28(77.8)	6(16.7)	2(5.6)	
	over 24 years	2(6.5)	18(58.1)	11(35.5)	7(70.0)	3(30.0)	0(0)	
	statistic	$\chi^2=5.676$			$\chi^2=3.867$			
Grade	freshman	2(50.0)	2(50.0)	0(0)	0(0)	0(0)	0(0)	
	sophomore	1(3.0)	25(75.8)	7(24.0)	25(58.1)	11(25.6)	7(16.3)	
	junior	1(4.0)	18(72.0)	6(24.0)	5(50.0)	5(50.0)	0(0)	
	senior	5(13.2)	20(52.6)	13(34.2)	39(83.0)	6(12.8)	2(4.3)	
	statistic	$\chi^2=14.366^{**}$			$\chi^2=12.832^{**}$			

※ χ^2 test: *95% significance level, **99% significance level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를 전공하는 한국 대학생과 베트남 대학생 간 진로 의식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인식의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건의료 전공에서의 융합연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국가 간 차이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진로는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진로 명확 & 의지 확고형’이 절반 이상(65%)을 차지하는 반면, 베트남 대학생은 진로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만 미루고 있어 진로에 대한 관여도가 낮고 주위 조언에 많이 의존하는 ‘진로 저관여 & 주위 의지형’이 69%로 나타나 진로 의식에서 한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둘째, 국적 내 차이에서도 한국 대학생들은 진로 방향이 명확하고 진로에 대한 본인의 의지가 확고한 반면, 베트남 대학생들은 진로 저관여와 진로에 대한 주위의 조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 중, 고에서의 진로 체험이나 진로 교육의 경험 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은 현재 다양한 진로 교육 및 진로상담이 제공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학생들은 진로 교육법(법률 제13336호)을 근거로 진로 탐색 학점제가 시행되어 생애 발달 과정에 따른 진로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받고 있다[17].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은 진로 교육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 그 자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 방향이 명확’하고 ‘진로에 대한 본인 의지가 확고’한 특징을 보이는 반면, 베트남 대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미뤄두거나 방관’ 및 ‘주위 조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등록금 마련 방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의 도움과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으로 학비를 마련하고 있지만, 베트남 학생들은 대부분 본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해서 마련하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학생들은 학업에 매진하고 진로에 대해 다양한 탐색 시도가 가능해 진로 방향이 명확할 수 있지만, 베트남 학생들은 당장 일을 하면서 학업을 하고 있기에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미루어두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진로 의식 군집별 학생 특성에서 한국과 베트남 대학생 모두 성별이나 연령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성별에 따라 진로 태도

에 차이가 나타난 오정아 등[18]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대학생 모두 학년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학생들이 학년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가치가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19]를 지지한다.

종합해보자면,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전공을 선택하고 입학해서 전공에 적응하면서 취업을 하기까지 자신의 적성, 능력, 일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청소년기 진로 태도가 삶의 만족에 깊이 관여함을 강조한 연구[18]를 지지한다. 또한, 본인이 학과를 선택한 경우 학과 만족도, 재학 만족도, 직업 만족도가 높아 학생 본인의 선택도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는 연구[20]와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들의 경우 다른 분야 전공 대학생들과 같이 진로 선택과 진로에 만족하는 대학생들이 전공에 더욱 잘 적응한다는 연구[21]를 지지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대학에서의 진로지도는 학생 개개인의 성향, 능력, 적성, 가치관 등에 맞추어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선택하고 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베트남의 보건의료 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떠한 요구도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동일 분야 연구에 활용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에 있어 표본 선정이 한국과 베트남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져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진행하고, 보건의료 외에 다른 전공과의 비교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유용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O. H. Pi. (2021.10.07.), Seoul/Gyeonggi metropolitan area 4-year university health department, *Naeli Newspaper*,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401021
- [2] J. S. Youn. (2021.11.24.), ‘New technology’ rather than AI/smart...I chose the health department where I can get a job, *CCtoday*, p 2.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3618>
- [3] S. W. Song. (2019.09.10.). From major universities

- in Gwangju... There is a clear focus on popular departments such as health and medical fields. *Yonhap News*.
<https://www.yna.co.kr/view/AKR2019091017250054?input=1195m>
- [4] K. H. Choi. (2019.05.02.). 20's and 30's, office workers still prefer... Health and medical jobs are also popular. *KBS News*.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92726&ref=A>
- [5] Y. H. Kim, K. H. Jeong & K. H. Kim. (2014). Influence of Choice and Satisfaction of Career on School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538-544. DOI : 10.5392/JKCA.2014.14.12.538
- [6] H. J. Kang. (2021). The Influence of Stress and Emotion Regulation Ability of Health College Students on University Life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9), 65-71. DOI : 10.15207/JKCS.2021.12.9.065
- [7] S. J. Lee & Y. J. Lee. (2012). Research on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n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 un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3(2), 27-32. DOI : 10.15207/JKCS.2012.3.2.027
- [8] V. G. Zunker. (2002). *Career Counseling: Applied Concepts of Life Planning*. CA: Brooks/Cole.
- [9] S. G. Kang. (2021.08.28.). 2021 Foreign Student's Stay. *Korean Journal of Study Abroad*.
<https://www.k-yuha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8>
- [10] Korean Education Statistics Service. <https://kess.chedi.re.kr/index>
- [11] H. S. Kim & E. S. Kim. (2018).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Patterns on Career maturity of Foreign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Focusing on the Differences between Chinese and Vietnam. *The Journal of Human Studies*, 4, 51-67.
- [12] H. J. Son. (2019).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Job Competen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Chinese Vietnamese Students at Universities and Colleges*. Major in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Educati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13] M. I. Choi. (2021). The Effects of Professor Competency Services and University Administrative Services on University-Foreign Student Relationships and Adaptation to University life :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University P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10), 169-175. DOI : 10.15207/JKCS.2021.12.10.169
- [14] H. S. Lee. (2021). The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openness to diversi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3), 273-280. DOI : 10.15207/JKCS.2021.12.3.273
- [15] C. Y. An. (2021.11.26.). Korea-Vietnam health and medical welfare cooperation to be strengthened. *Medical News*.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269>
- [16] E. K. Lee.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fficacy and Career Value and Maturity Levels of University Students*. Major in Education Graduate School Wonkwang University.
- [17] H. G. Kwon, & M. H. Choi (2021) Analysis of the career education needs of college student-athletes *Korean Journal of Sport Management*. 26(6), 19-33. DOI : 10.31308/KSSM.26.6.19
- [18] J. A. Oh, Y. J. Lee & P. H. Kim. (2021). Exploring The Career Attitude Prediction Model of Multicultural Youth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2(6), 99-105. DOI : 10.15207/JKCS.2021.12.6.099
- [19] J. H. Nam & H. K. Lee. (2020). College Life Adjustment Factors Affecting the Work Values of Public Health Major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1), 581-589. DOI : 10.5392/JKCA.2020.20.11.581
- [20] J. D. Yeo, H. S. Kim & I. H. Ko. (2012). A Study on Department Selection Determinants and Satisfaction of Radiology Major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6(1), 105-116. DOI : 10.12811/kshsm.2012.6.1.105
- [21] Y. H. Kim, K. H. Jeong & K. H. Kim. (2014). Influence of Choice and Satisfaction of Career on School Adjustment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ealth Car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4(12), 538-544. DOI : 10.5392/JKCA.2014.14.12.538

이 예 종(Ye-Jong Lee)

[종신회원]



- 2015년 8월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제론테크놀로지, 융복합 복지, 싸나톨로지
- E-Mail : claton@hanmail.net